

실천과 진보 : 자생적 학문을 찾기 위한 철학적 검토

최종덕(한국철학사상연구회, 철학)

1. 실천과 진보 논의는 왜 필요한가

지난 1980년대 중반 이후 새로운 학문의 길을 모색하는 소장 학자들의 고민은 전과 다르게 우리 자신에 대한 비판과 반성으로부터 추동되었다. 그 내부적 반성과 외부적 비판에 대한 수사법과 핵심어는 다음과 같았다. 학문의 고물상과 수입상, 학문의 자생성과 종속 학문, 토착이론과 학문의 완결성, 학벌주의와 권력도구의 학자, 학문의 폐쇄성과 학제간 연구, 실천이론과 사회참여, 근대성 논쟁과 글쓰기 담론들, 이데올로기와 신자유주의, 인문학의 위기 등이다. 이러한 비판적 반성을 담지하는 지식인의 여정은 학문의 자생성과 보편성의 갈등을 어느 정도 종합적 논제로 상승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문제 지적만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러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찾아내는 일이 중요하다. 필자는 그런 미해결의 이유가 실천과 진보의 개념을 지나치게 구호와 이념의 도구로만 사용했으며 서양의 범주 안에서만 개념 이해를 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물론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의 비판적 반성의 추동력이 우리 학문 자체의 표현능력이기보다는 광주항쟁의 여력에 의한 무임승차가 많았다고 나는 평가한다. 그런데 광주항쟁의 역사를 상실해가는 급속한 우경화 현상 때문에 그 추동력 또한 미약해져 간다는 점이다. 둘째 일제 토양을 업은 기성 학자들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졌지만 여전히 그 사회적 잔재를 청산하는 힘의 역부족 때문이다. 셋째 미국식 학자들이 대부분의 공공정책과 교육문화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70-80년대 젊은 아픔을 겪었던 진보적인 학자들의 수가 이 시기에 몰려 있었고, 또한 학문의 길을 이어갈 후학의 수가 지금도 급격히 줄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풀어 갈 것인가의 질문은 지금과 다른 방식의 태도와 관점으로 답변되어야 할 것이다. 불행히도 그 질문과 답변은 일의적이지 않으며 매우 중층적으로 얽혀 있다. 그래서 한 가지 이론으로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다. 질문과 답변의 중층적 관계임을 인정하는 것은 당장의 묘책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론적 묘수풀이로서 우리 학문의 노정을 논의하기는 어렵다.

질문과 답변의 중층적 관계가 두드러지는 논지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학문의 주체성 담론을 이끌어 왔던 실천 개념과 진보 개념이다. 이런 개념에 대한 통속적 이해가 오늘날 학문의 갈등을 야기한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학문의 자생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하여 먼저 실천과 진보의 개념을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글은 짧은 지면이나마 실천과 진보에 대한 철학적 검토를 압축적으로 시도했다

2. 개념의 혼돈들

2.1 시장원리의 혼돈

시장원리의 간판이 여기저기서 넘쳐흐른다. 경쟁과 도태라는 말이 거리낌 없이 새로운 가치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나온 우리 역사에서 하도 많이 남에게 치이고 부대끼다 보니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희망에서 나온 구호인 것 같다. 그런데 요즘은 소수의 욕심이 다수의 희망으로 위장한 채 경쟁논리의 수사학이 너무 지나쳐 버렸다. 그 한 사례로서 고교 평준화 문제에서 논의를 이어가려 한다.

지나온 대학입시제도가 변화무상하게도 20년 동안 18번이나 바뀌었으니 교육부의 입시교육 정책은 참으로 무의미하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나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요즘 고교평준화를 폐지하고 입시부활을 하자는 경제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다보면 그 간단한 시장원리를 제대로 알고 말하는 것인지 오히려 의문이 든다. 몇몇 입시전문 고등학교를 양산해서, 창의적 교육을 정말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학벌사회를 더 공고히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특목고인 과학고나 외국어고등학교도 이미 입시전문 특별학교로 전락되어 시장원리의 적용이 잘못 됐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 터인데, 입시부활의 소리를 연발하여 내고 있으니 시장원리를 전혀 모르는 것이 분명하다. 한국사회는 여전히 망국의 학벌 사회인지라 대학 진학률이 고교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겠다. 그런데 2005년 5월 중순 이미 평준화 시행 4년차인 군포 지역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 통계를 보면, 비평준화 고등학교에서 소위 명문대 진학을 많이 한다는 편견이 결정적 오관입을 알게 해준다. 군포 지역에서 과거 비평준화 시절과 평준화 이후를 비교해 본 결과 대학 진학률이 오히려 5.1% 높아졌으며, 소위 명문대 진학률은 그 이상의 훨씬 높은 상승률을 보여 주었다. 군포 지역만이 아니라 창원, 마산 지역 등에서도 평준화 이후 뚜렷한 대학 진학률의 상승을 보고하고 있다. 다른 대부분의 도시에서도 평준화의 높은 실질적 효율성을 인정하였다. 그들의 교육청이라고 해서 학벌사회의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거나 이상적인 교육공동체 이념을 내세워서 평준화를 했을까? 절대 아니다. 단지 평준화의 효율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교 비평준화를 주장하거나 그 대안으로 고교 등급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거대 대학의 목소리는 높아져만 가고 있다. 지난 여름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대학입시의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학생들을 쉼아내는 일’이라는 말을 거리낌 없이 뱉어 냈다. 기결과 포복절도 사이에서 나는 기운을 다시 차리고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시민단체에서는 서울대 및 몇몇 대학이 고교 등급제를 이미 시행했다고 한 반면 해당 대학들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 그 시비를 가리는 일은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입시전형 규정상 공식적으로 등급제를 하지 않더라도 입시 면접 등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등급제에 해당하는 선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단순히 학업 능력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는 목표 이전에 다른 의도가 있다는 뜻이다. 놀랍게도 그 숨겨진 의도는 권력과 돈이 모여 있는 소위 강남이라는 지역의 학생들을 더 많이 뽑는데 있으며, 또한 거대 대학들이 점점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는데 주요한 변수가 된다. 물론 그런 의도조차 성공할리는 없지만 말이다.

이미 대기업은 대학 교수의 강의내용을 통제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맞춤교육이니 하면서 대학의 커리큘럼까지 고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학은 산학협력단의 장사가 주도해간다고 말할 정도로 기업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하면 대학의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다. 대학의 실험실은 이미 산학 협력 연구비 따오기 경쟁체제로 진입한 지 오래되어서, 같은 연구동의 어떤 교수는 석박사 과정생을 30명이나 두고 있는 반면, 그 옆방 이론분야 교수는 2명의 석사 과정생을 두고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일이 적지 않다. 학생들 또한 연구비 많은 실험실 과제로 자기 논문 주제를 쉽게 갈아치우는 현상도 일어난다. 학문의 공간에서 이미 시장원리라기 보다는 시장독재 현상이 만연되어 있다.

시장원리의 칼등을 뒤집어서 약육강식의 칼날을 드러내어 말하는 것이 오히려 솔직한 표현이다. 시장원리는 개념의 역사적 배경이 무엇이고 언제부터 생겼는지, 그리고 정확한 개념정의가 무엇인지 경제학 교과서를 아무리 들춰보아도 나오지 않는다. 그런 정체불명의 개념이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아마도 아담 스미스나 찰스 다윈을 차용한 자유주의 자본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말인 것 같다.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는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한번도 나오지를 않는데도, 특히 약육강식의 허울을 쓴 경쟁논리의 근거를 진화론에 갖다 대는 것과 비슷하다. 시장원리의 애매한 개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세계 지식의 역사에서 시장원리가 궁극적으로 역사와 삶의 진보를 가져다주었다는 어떤 근거나 검증확인이 이뤄진 것이 아직은 없다. 이제 미국의 몇몇 자본행태만을 모델로 삼는 시장원리의 허울을 벗기고 진짜 시장원리의 적용을 제대로 하거나, 그렇게 못한다면 최소한 이미 철학적 근원으로서 검증된 삶의 평등원칙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2.2 기득권은 미소한 손실마저도 과장된 위기상황으로 연출할 수밖에 없다.

(사례1) 요즘 여자들이 드세지더니 매맞는 남편까지 늘었다면서 요즘 남자들이 살기 힘들다고 불평을 툭툭 던지는 남자들이 많아졌다. 재미있는 현상이다. 양성평등이 아주 조금이나마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남성의 권력이 절대적인데도 못남성들은 극미소의 손실을 입은 것조차 마치 대단히 큰 손상으로 여기고 있다. 원래 권력이란 그런 것이어서 많이 가질수록 약간의 손실마저 큰 위협으로 느끼는 가상현상을 수반한다. (사례2) 문명권력은 환경운동을 하는 소수의 사람들마저도 수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들이 환경운동을 하는 소수자들을 가상의 다수자로 둔갑시키고는 반격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그런 그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다. “그 사람들 말이야, 요즘 입만 병긋하면 환경 환경하니 우리가 얼마나 잘 살게 되었다고 환경타령이야” 요즘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노동과 환경이 부딪치는 우리의 상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사례3) 이와 똑같은 수사법이 우리 주변을 횡행하고 있다. “언제부터 민주화야, 운동 꽤나 했다고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야, 별건 대낮에 순빨갱이들이 돌아다니질 않나, 텔레비전에 나오질 않나, 정말 세상 많이 변했어” 그들의 기득권은 시대의 새로운 변화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그들에게 현존하는 북한 정권은 거꾸로 자기 생존의 최후보루이며 이를 침해하는 일을 절대 용서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송두윳과 강정구는 가짜 이념의 미아가 되는 것이다. (사례4) 지방에 사는 나로서 중앙의 권력을 더 심각히 느끼게 되는데, 서울의 향기를 잊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중앙권력을 사수하고자 한다. “요즘 지역혁신이다, 행정수도니 해서 말야, 서울 사는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어, 연구비도 지방대학에서 다 가져가니 서울서 뭘 해먹지” 가증의 극치이다. 한술 더 뜨는 대학교수들도 있다. “학진 연구비 책정이 너무 한 것 아니야? 몇 년 사이에 너무 심하게 변한 것 같네. 우리 교수들은 겨우 30만원이라니,,” 아마도 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 연구과제에 있어서 시간강사하는 후학들이 200만원 받는 것에 대한 비교인가 보다. 그러니 연구책임교수는 너무 자연스럽게 생활비의 전부인 후학들의 200만원마저 잘라서 연구소 혹은 실험실 공동운영비라는 명목으로 입금통장을 2개 만들게 된다.

이런 논리는 우리 학계에도 여실히 적용되고 있다. 서론에서 말했듯이 1980년대 이후 실천적 지식의 시대적 요청과 학문적 당위에 따라 다음의 문제들이 지적되어 왔다.¹⁾ (1) 식민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왜곡된 학문 (2) 군사 정권 이후 권력의 도구로 전락된 소위 고급 학자들의 반학문성 (3) 미국 문화가 여과 없이 인문학에 직수입되면서 생긴 학문의 시녀 현상 (4) 민족주의라는 가명으로 훈고학적 국수주의에 매달린 채 전통의 재창조를 거부하는 일 (5) 지식의 중립성과 학문의 객관성이라는 허울 아래 선비의식을 정당화하려는 편의주의적 상아탑의 가면들 (6) 학벌주의가 야기한 병리적 교육구조 (7) 신자유주의의 논리를 교육에 대입하여 획일적인 학문의 우열을 가르치는 일 (8) 학문의 세분화에 따르는 학문분야의 고립화 현상 등이다. 이러한 비판과 반성이 그대로 문제 해결로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시대적 고민을 학문적 실천으로 전환하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학계의 작은 변화는 글쓰기 담론, 근대화 담론, 민족주의 담론 등의 매우 활발한 학문적 담론들에 의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지식인은 양적 차원에서 볼 경우 전체 학계에 비하여 매우 작은 수에 지나지 않는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현실의 학문 풍토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변화조차도 기득권을 쥐고 있는 지식인, 미국주의에 매몰된 학자들, 이념의 색깔을 입히는 아류 학자들이 볼 때 그들의 심기를 크게 자극하는 일이 된다. 이러한 자극은 앞서 말했듯이 그들에게 가상 위협을 느끼게 하여 심각한 반작용을 불러일으킨다. 기득권의 지식인은 그들 자신이 마치 전부를 잃은 것처럼 표현한다. 우선 그들은 비판적 지식인에게 모든 지식 권력을 다 빼앗겼다는 식의 과도된 상황연출을 최대한 표출한다. 그들의 표출 이유는 비판적 지식인의 실천지향성과 진보적 성향 때문이 아니다. 단지 비판적 지식인이 과거와 달리 마스크에 자주 등장한다는 점이며, 바로 그런 외형 때문에 진보 지식인에게 권력이 이동되고 있다는 가상위협을 느끼는 것이며 그런 총체적 변화 자체가 그들에게는 큰 불만의 핵심이 된다.

그런 그들의 내재적 불만감은 몇 가지 유형으로 표출된다. 그 하나는 기존의 방식 그대로를 답습하여 상대

1) 최종덕, 인문학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휴머니스트사, 36쪽

방에게 빨강 색깔을 입히는 구태의연한 작업이다. 둘째는 보수 학계를 자처하며 나름대로의 합리적 이론을 생성하려는 노력이다. 셋째는 실천학문의 시대적 과제 그 자체가 학자의 본연이 될 수 없다는 지식의 순수성을 표방한다. 이 중에서 첫째는 학문적으로 논의할 가치가 없으며, 둘째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면 되지만, 셋째는 어느 정도 재론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발간된 어느 사회학자의 책에 의하면 실천학문의 학자들에게 이제 현장에서 벗어나 상아탑으로 되돌아갈 것을 거꾸로 주문하고 있다.²⁾ 또한 실천에 눈돌릴 시간이 있다면, 이론 학문의 수준을 국제적으로 올리라는 주문을 곁들이고 있다. 그런 주문에 어울리게 그 책의 저자는 그의 책을 영문으로도 동시에 발간했다. 나는 그 책을 보면서 저자에게 배울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통 사람보다 썩 잘하는 영어 글쓰기 실력뿐이다. 그 외에는 별다른 논쟁점을 찾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저자가 인식하고 비판한 실천의 의미와 범주가 너무 협소하거나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3. 실천과 이론의 혼돈

3.1 실천의 철학적 검토

그래서 실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생겼다. 실천과 이론 양자는 인간과 세계가 만나는 접점에서 축조된 그리스 철학의 개념들이다. 이론은 인간이 세계를 관망하는 방식인데 반하여, 실천은 인간이 세계에 개입하는 방식을 일러 말한다. 관망과 개입은 서구 사상사의 철학적 두 축을 이루면서, 이론과 실천의 장르로 진화했다는 뜻이다. 관망은 철학적 인식과 존재의 구조를 형성한 배후의 시선이며 실천은 세계를 해석하고 해석된 세계와 나 사이의 관계를 배워시키는 존재의 명령들이다. 관망된 세계는 건조하고dry 딱딱하고hard 차가우며cold 색깔이 없지만colorless 그 대신 세계를 움직이게 하는 운동력의 원천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감가상각이 전혀 없는 존재의 집이 된다고 보았다. 그 존재의 집 앞에 한다하는 이성을 갖춘 인간조차도 그 세입자로 무조건 들어 올 수 없다는 간판이 달려 있다. 인간 역시 그 집으로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단지 그 집을 묘사할 수 있다. 혹은 그 집의 외곽을 기술description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한 기술의 최대 성과 중의 하나가 근대과학혁명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그 집은 일종의 존재의 블랙박스로서 항상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거나 아니면 형이상학의 시나리오를 제공한다. 결국 서구 철학사에서 과학과 형이상학은 동일한 뿌리의 집을 갖고 있다.

반면 실천은 인간이 세계에 개입하면서 발생하는 관계들의 안내목록이다. 나중에 히브리즘과 혼종이 되어버린 그리스 사유의 관점에서 볼 경우 실천은 실제로 인간이 세계에 개입하는 참여적 방향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개체 인간에 개입하는 침투적 방향이 강하게 드러난다. 어쨌든 상호 개입을 전제로 하여 실천의 장르가 형성된다. 인간이 세계에 개입하는 일은 자연주의적 도덕감의 규범을 이끌어내었지만, 세계가 인간에 개입하는 일은 존재의 당위와 신의 명령을 개인에게 일일이 투사하는 일을 맡았다. 인간이 세계에 개입하는 일과 세계가 인간에 개입하는 일을 합동시킴으로써 서구 윤리학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 축조자는 뫼니뫼니해도 희랍인 아리스토텔레스를 들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관망조차도 개입의 구조에서 해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의 윤리학은 자연분류학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³⁾ 그래서 이론의 장르인 과학 역시 실천의 배후를 지니며, 과학은 단지 세계가 인간에 개입하는 침투적 방향으로서의 실천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기존의 관행대로 이론과 실천을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서구 사상사를 평가하지 않는다. 이론과 실천의 틀을 미리 마련한 채 그 안에 사실과 당위를 배치하거나 혹은 과학과 도덕을 배정함으로써 서구 철학사를 단정하는 일에 나는 반대한다. 서구 사상사는 우리가 아는 범주와 달리 실천의 사상사임을 인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관념론자인 버클리의 논제를 하나 들어 보기로 하자. 버클리의 관념론은 실제로 경험론의 한 유형이다. 그의 유명한 논제 중 하나는 (항상 일인칭으로서의 “나”에게) 지각되는 것이 존재한다는 명제다. 그런데 내가 자거나 죽거나 해서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경우 세계의 존재도 사라지는 기이한 모순이 생긴

2) 김경만, *담론과 해방*, 궁리출판사, 2005

3) Wolfgang Kullmann, *Aristoteles und die moderne Wissenschaft*, Franz Steiner, 1998. V장 2절 참조

다. 버클리도 이 정도를 모를 리가 없었겠다. 그래서 그는 두 번째 명제를 설정하여 첫째 모순을 해결하려 했다. 즉 내가 지각하지 않는 순간이 있더라도 그 어느 때 어느 곳이라도 유비쿼터스의 방식으로 신이 나 대신 지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세계는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둘째 명제는 신과 세계를 임시방편으로 분리하여 보편 객체를 이원화하는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기는 하지만, 신의 개입 즉 실천적 행위를 통하여 세계를 설명하려는 서구 사상사의 단편을 보여 주고 있다.

합리적 이론체계의 왕자라 불리우는 데카르트마저 이성의 실천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 그의 주저 <방법서설>의 요지이다. 방법서설을 쓰기 이전 데카르트는 원래 우주물리학 저술을 준비하다가 갈릴레이의 불운한 소식을 접한 이후 탐구방식을 바꾸었다. 그는 세계 안에서 경험의 요인들을 삭제하고 그 대신 이론의 요인들만을 가지고 세계를 기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바로 그런 방식이 데카르트를 유명하게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리스의 자연주의적 기하학을 이성주의적 기하학으로 바꾸었으며 이는 신이 세계에 개입하는 방식으로서 가장 실천적인 탐구결과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3.2 이론은 실천을 위한 도구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관망으로서의 이론과 개입으로서의 실천은 서구철학사에서조차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주요한 근거는 반복해서 말하거니와 개입의 두 방식 중에서 세계가 개인에 개입하는 침투적 방향으로 이론과 실천이 모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침투적 방향이라는 개입의 실천성은 서구에서 기독교와 그리스 철학 그리고 근대과학 및 공리주의를 하나로 엮어주는 매우 기묘하면서도 체계적인 사유의 대구조를 형성하였다. 나아가 서구 제국주의의 도덕적 정당성 및 산업혁명 이후의 기술자본주의의 합리화 그리고 철학적 실용주의를 체계적으로 축조하는데 결정적인 순기능을 하였다. 이런 실천의 서구적 구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1)서구의 과학과 기술 사이의 차이와 그 결합가능성의 구조를 접근할 수 없으며, (2) 서구 제국주의의 역사를 오늘에 투영시키지 못하며 (3) 서구적 진보 개념의 틀을 제대로 볼 수 없으며 (4) 나아가 요즘 국제사회에서 터지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천의 의미를 19세기 중엽 이후의 실천 개념에 국한하고 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은 평등을 요청하였고 이를 이루기 위한 사회적 태도가 바로 새로운 방식의 실천 구조를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당시의 실천 의미는 전적으로 인간이 세계에 개입하는 참여적 방향으로 정향되었으며 합리주의적 구도는 물론이거니와 세계가 인간에 개입하는 침투적 방향의 실천 구도는 전적으로 배제되었다. 칸트의 실천철학은 대표적인 침투적 실천 구조이다. 그런데 대표적인 양상이 마르크스 실천철학에서 나타난다. 마르크스 실천철학은 지금은 없어진 20세기 현실 사회주의 국가이념으로 계승되면서 대부분의 기운을 상실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의 대상이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유효하다. 단지 참여적 방향의 실천은 침투적 방향의 실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인식이 결핍되면 오늘날의 미국의 신자유주의 확산위기와 물질주의와 과학주의가 일상적 삶에 치명적으로 관여하는 속도감각을 놓칠 수가 있다.

문제는 우리다. 이제 그 단어조차 사라진 냉전이라는 가상괴물의 뒷다리를 부여잡고 애타게 짝사랑의 노래를 부르짖는 한반도 기득권자들은 실천이라는 말만 들어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라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 자연스레 실천과 이론을 분리하여 실천은 빨강색, 이론은 회색으로 색깔을 입히거나, 실천은 운동쟁이, 이론은 순수성으로 치부한다. 다 지나간 이야기인데 아직도 그렇게 보려는 사람이 많은 말이다. 더 나가는 일부 지식인들이 있는데, 실천은 현실참여만 하고 공부는 못하는 사람의 전유물이요, 이론은 객관적이고 순수이론을 탐구하는 사람의 전유물로 구분하여 그 사이의 우열의 가치평가를 내리는 웃지 못할 상황이 학계에서도 간혹 벌어지기도 한다. 실천과 이론의 철학적 배후를 놓칠 경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며, 또한 이는 진보의 철학적 의미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먼저 아는 일이 중요함을 함축한다.

4. 진보의 다면성

4.1 철학적 진보 개념은 매우 복잡하다.

실천의 폭을 19세기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서구 사상사 2500년의 철학사로 확장해서 보아야 하듯이 진보 개념 역시 전체 사상사에서 보아야 한다. 진보적 학자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서 생기는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들, 어떤 경우에는 공허한 자만심까지 갖는 회한한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 진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정치적인 사태에 밀착된 것으로 비난하는 의도적인 매스컴의 역할이 대단했는지 진보적이라는 수식어는 앞서 실천적이라는 수식어가 갖는 고난의 대부분을 그대로 안고 있다. 진보의 다층적 개념들을 간과한 채, 단순하게 사회과학의 한 주제로만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사회적 의미의 진보 개념은 형이상학적 진보 개념과 달리 이론과 실천이 종합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과제를 안고 출발했으며 따라서 이러한 진보 개념은 이념적 성향을 강하게 함축할 수밖에 없었다. 이념 성향의 진보는 보수 개념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하지만, 보수 개념 자체가 진보의 작용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설정된 대치 개념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진보와 보수는 개념적으로 볼 경우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인과적 선후를 판단하기 어려운 묘한 공존의 관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존의 관계는 바로 19세기 유럽사회의 모순을 드러내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념적 진보는 19세기 말의 사회적 요청에 따른 것이다. 서구 자본주의가 정형화하는 서양 근대 후기에 들어와 그러한 사회적 요청은 자본의 모순에 대한 강렬한 반작용이었으며, 그 반작용은 사회적 해체와 재조직을 추동하는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렇게 진보 운동은 산업혁명 이후 피폐해진 삶의 조건과 인간 소외를 탈출하려는 시대적 갈망에서 비롯되었으며, 따라서 물질 토대를 갖춘 인간다운 삶을 구가하려는 사회적 가치규범을 지향한다. 그러나 진보는 19세기에만 매달려 있는 신흥 개념이 결코 아니다. 실천의 의미를 침투적 방향에서도 바라보아야 하듯이 진보 개념 역시 반드시 철학적 맥락에서 또한 사회적 맥락에서 그리고 역사적 맥락의 다각적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오늘날 혼란에 빠진 진보 개념의 다면성을 비로소 접근할 수 있다.

진보 개념의 다면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플라톤에서 시작하는 형이상학적 진보
- ② 기독교의 구원의 종착점을 행한 진보
- ③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향한 진보
- ④ 과학의 발전 개념으로서, 근대과학혁명 이후 자연의 절대적 법칙을 향한 진보
- ⑤ 경험론적 사유의 누적이며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자유방임주의로 진화하는 자유주의적 진보
- ⑥ 사회주의 운동과 맞닿은 사회운동적 진보
- ⑦ 빅토리아의 산물로서 기술과 자본에 의한 현대의 문명적 진보

이들 사이의 차이성과 연속성을 살피는 일은 바로 우리 역사의 현재와 미래의 끈을 찾아가는 주요한 단서가 된다. 특히 내가 공부하는 학문이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대한 공부의 지리부도를 편집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미래사회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로 자리 잡은 현대 과학기술에 대한 학문적 입장을 세워야 하는 주요한 준거가 바로 진보 개념에 대한 인식에 있다.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자. 요즘 학문적 논쟁에 오른 배아복제기술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본다면 그 이해가 쉬울 수 있다. 생명복제기술에 대한 찬반 논쟁의 분포도를 다시 보자는 말이다.

눈에 띄는 것이 부시의 보수 우파 정부는 반대를 하지만 같은 유사 보수정권인 영국 정부는 최대한 찬성을 한다. 미국에서도 보수 교회 입장은 반대를 하고 있지만 미소의 편차를 지닌 경제자유주의자들은 적극적인 찬성론자들이다. 다른 편으로 본다면 미국 교회권력의 공식적인 입장은 반대이지만 교인 개개인의 입장은 찬성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한국 교회도 비슷한 상황이다. 기존 독일 중도좌파 정부는 반대를 하다가 내부 진보파 의회에 의해 찬성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으며, 얼마 전 교체된 독일 대연합정권인 우파 정부는 찬성으로

기울고 있으나 내부 기독교측 의회는 반대를 하고 있다. 프랑스 좌파 의회는 찬성을 하며 오히려 우파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정부 안에서 의견이 다 갈려 아예 입장정리를 하고 있지 않다. 바티칸이 옆에 붙어서 상황이 더 복잡한 모양이다. 중국은 찬성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일본은 생명윤리법의 규제가 강한 듯 보이지만 은근히 연구범위의 폭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편이다. 한국은 더 복잡하다. 진보사회학자들은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들과 대척에 놓여진 보수 교회단체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어서 그들 간의 공동 연대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이한 농담이 나타나고 있다. 보수 자본가들은 한결같이 찬성을 하고 있으며 그들 사이에 놓여진 보수교회 신자들은 묵묵부답으로 찬성을 대신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들을 일관된 기준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하거나, 머리가 빙빙 돌 정도로 복잡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반응들은 진보에 대한 기준 역시 복잡할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하기 때문에 진보 개념의 다면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4.2 실천 범주로서 형이상학적 진보 개념은 세계가 인간에 개입하는 침투적 방향을 갖는다.

형이상학적 진보의 가장 중요한 준거는 진보의 목적이 있다는 점이다. 그 목적은 진보의 걸음이 향하는 끝의 존재를 상정한다. 그래서 진보는 끝을 향한 운동이다. 목적의 끝은 서구철학사에서 말하는 이데아가 될 수 있으며 불변의 절대존재가 될 수 있으며 기독교의 신이 될 수도 있으며 과학세계의 통일법칙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정언명법의 절대적 규정자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진보의 목적은 형이상학적 존재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어느 것보다 더 좋은 것 나아가 최상의 좋은 것임을 함의한다. 가치와 사실 그리고 존재가 기묘하게 삼각대로 엮여 있다는 점이다.

논란이 많을 수 있지만, 서구의 진보 개념들은 이렇게 가치 개념과 동떨어질 수 없다는 점은 서구철학사유의 기초이다. 목적을 상정하는 모든 개념들은 가치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좋은 것’ 혹은 ‘좋은’에 대한 희망과 사실 그리고 이념과 절대 존재들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존재와 가치를 구분하고자 했던 형이상학적 진보 개념 역시 철학사의 넓은 스펙트럼에서 볼 경우 가치와 존재가 얽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래서 진보 개념은 침투적 방향의 실천 범주에서 논의되어야만 한다. 실천 범주가 범할 수 있는 주관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절대가치를 최고 상위에 인위적으로 설정하는 일이 형이상학적 진보의 첫 단계이다. 거꾸로 그렇게 함으로써 도덕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최고의 도덕 원리는 최상의 존재원리로서 우대받게 되었다. 그렇게 우대를 해주어야만 거꾸로 사회적 규범의 절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서구 사상사에서 도덕의 최후목적은 사실의 마지막 배후이며 동시에 형이상학적 존재이며 다가설 수 없는 유토피아이며 신의 절대적 위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서구 진보의 역사는 존재론의 역사에서 오히려 나온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진보는 선형적(linear)인 발전을 밑에 깔고 있다. 진보의 선형성이라 함은 ① 시간의 흐름과 발전의 속도가 정비례는 아닐지언정 서로 비례하므로, 과거보다 현재가 좋으며 현재보다 미래가 더 좋을 것이라는 신념이 깔려 있으며, ② 그 시간은 미래를 향해 앞으로만 흘러가며, ③ 미래의 끝 즉 진보의 완전한 끝이 존재함을 함의한다. 다시 말해서 시간적 목표점은 절대점에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신념이다. 그 끝은 구원의 종말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계몽의 유토피아이기도 하다. 아니면 자연과학의 완성이 즉 우주의 통일법칙을 찾아내는 미래이기도 하다. 혹은 진지를 하나씩 점령하여 끝내는 최후의 고지를 탈환하는 기술지배의 완성 기일 수도 있다.⁴⁾

4.3 빅토리아 시대에 완성되는 자유방임형 진보도 있다.

4) 최종덕, “과학의 진보와 역사의 진보 사이에서”, 박완규 역음, 이 땅의 철학자 무엇을 생각하는가, 철학과 현실사, 2005

플라톤의 이데아에서 칸트의 도덕적 이성으로 이르는 합리론 전통의 진보관으로부터 경험론에 기초하며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팽배해진 자유주의적 진보관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매우 흥미롭다. 이는 헤겔의 세계통괄적 발전의 관념과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적 진보와 진화를 예언한 헤겔의 종합적 진보 개념은 콩트의 실증주의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아 빅토리아 특유의 진보관을 형성하였다.⁵⁾ 실천의 범주로 확고히 자리잡은 빅토리아 진보주의는 세계가 개인에 개입하는 침투적 방향에서 개인이 세계에 개입하는 참여적 방향으로 전환한 진보의 틀이다. 빅토리아 진보 개념은 간단히 말해서 이 세계가 현실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강하게 표방한다. 이렇게 자유주의적 진보관은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지리적 팽창에 따른 자본 축적에 의해 당시 영국 지식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이는 인구의 도시 밀집화와 집약적 공장생산의 확대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사회현상은 방임에 가까운 자유경쟁논리의 확산을 정착시켰다. 이 점이 바로 빅토리아 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주류였다. 다시 말해서 진보의 개념과 자유의 개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시점이 바로 빅토리아 시대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다윈의 진화론을 낳았으며 자유시장경제의 초기적 토대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⁶⁾

4.4 빅토리아 진보의 사생아가 19세기 자유 개념이었다.

진보와 자유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된 사회적 돌연변이가 빅토리아 시대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중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유방임주의는 시민사회의 성숙과 함께 물질적 모순을 야기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식민지 개척의 확장으로 자본의 급격한 팽창 및 후발 제국주의인 미국의 성장세는 프랑스 혁명의 자유 개념을 신대륙 원주민과 노동자의 착취를 합리화하는 도구적 개념으로 불시착시켜 놓았다. 이때부터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라는 말이 왜곡되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해서 자유의 개념이 자본 축적의 수단으로 전락되었다는 말이다. 논리적으로는 진보가 자유에 접목하고, 자유는 방임적 경쟁구도로 연결되며, 경쟁구도는 자본 기득권을 가진 보수집단에 유리하게끔 전개되었기 때문에, 결국 “진보는 보수다”라는 말도 안 되는 형식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형식모순으로 그쳤으면 좋으련만, 현실에서는 사회적 모순의 극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작은 땅, 많은 인구라는 19세기 유럽사회가 안고 있는 취약한 물적 조건과 봉건사회라는 제도적 조건 등을 통합하기 위하여 그들은 제국주의적 확장 정책과 산업화에 따르는 도시 밀집화가 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유일한 자구책이라고 보았다. 결국 그들의 자구책은 철저히 가진 것을 더 늘리고 잘 간직하는 데 있다. 그래서 자구적 노력의 양태는 필연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모순의 누적과 극대화는 결국 제도화된 보수를 극복하고 다른 차원에서 본 사회의 진보적 전환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진보의 의미를 사회운동적 진보라고 부르고자 한다.

4.5 사회운동적 진보가 탄생하면서 요즘 말하는 진보 개념으로 이어졌다.

기성 보수 세력에 휘둘리고만 있는 민중들은 새로운 무언가를 갈구하고 있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등장하고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이때부터 새롭게 조직화된 보수와 진보 사이의 대립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평등의 문제가 복지정책의 현실적 문제에 어떻게 적용가능한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사회주의 운동이 조금씩 전개되었다. 계급의 불평등, 빈부 차에 의한 물질 불평등, 그리고 성적 불평등(sexual discrimination) 문제에 대하여 관심과 해결의지를 실현하려는 세력을 대체로 역사적 진보주의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에 대한 반작용이었고, 최소한 기득권을 존치하려는 집단이 아닌 것은 분명하였다. 그래도 역시 진보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진단은 아주 모호하기는 하다. 그 모호해진 이유는 매우 추상적인 곳에 숨겨져 있었다. 역사적 진보는 빅토리아 시대의 진보관에 대한 반작용이었지만 여전히 합리주의 전통의 목적론과 경험론의 누적된 진보관과 공유되는 부분을 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역사적 조건에서

5) 존 베리(박홍규 옮김), 사상의 자유의 역사, 바오, 2005. 7-8장 참조

6) Michael Ruse, Evolutionary Naturalism, Routledge, 1995. chapter4 참조

바라본 인간을 바로 진보의 기준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형이상학적 접근과 그 차이를 보인다. 인간의 구체적인 삶의 조건과 연관되어야만 진보는 그 의미를 담보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5. 학문의 주체성

서양학을 공부하는 나로서 학문 개념의 대부분이 서양이론에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피해 갈 수 없다. 특히 실천과 진보의 개념은 개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체적 삶에 직결된 행위의 안내자 구실을 하므로 구체적인 맥락을 무시할 수 없다. 진보의 한 장르인 마르크스 실천철학조차도 유토피아 맥락에 서있다는 사상적 계보를 읽어내야 하며, 서구의 존재론 역시 단순한 추상의 형이상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의 장르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을 이 글에서 강조했다. 이 점을 무시해서는 근대 서구 제국주의의 역사적 전략을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진보의 추동력은 마르크스 진보 개념보다 오히려 빅토리아 진보 개념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학문은 철저하게 이론 이해와 실천 이해를 분리해 왔다. 진보와 보수 사이의 정치적 간격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보의 의미를 너무 간명하게 획일화시킨 것도 문제다. 실천과 진보 논의는 실제로 이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아직도 서양과 동양의 용벽을 넘지 못하니 문명의 충돌을 충돌로 알고 있으며, 전통과 근대의 물리적 시차 적용을 못한 채 밤에 깨고 낮에 졸고 있다. 과학과 인문학의 괴리는 점점 더 깊어 그 대화와 소통은 멀어지고, 지식과 삶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이 되어 버리니 구체적 삶과 유리된 편린의 지식만이 난무해졌다.

서구가 동양을 접근하는 기본 방식은 그들의 생존을 위한 자구적 실천행위임을 모른 채, 단순히 서구 기준에 의한 서구 수준으로 이론을 상승시켜야 한다는 뼈꾸기 소리가 요란하다. 자신을 자각하고 자성하면서 동양을 찾는 일이 늘기는 했어도 보수와 국수의 잔치일 뿐이다. 단순 반작용으로 동양을 찾는 일은 결국 신비주의로 빠지거나 국수주의적 행태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는 말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학문의 주체성이란 자기 거울에 비친 반성력과 타자를 꿰뚫는 비판력에서 나올 것이다. 학문의 자생성이란 현재라는 시간의 원천을 갖기 때문에 과거에 목매일 필요 없으며 동양에 얽힐 필요가 없다. 먼저 수입된 서양 이론의 혼돈을 제거해야 한다. 서양이 만들어준 개념은 그들의 콘텍스트에서 출산된 것이므로 그들의 자생력을 위한 그들의 실천적 노력일 뿐이다. 서양학문을 하는 나지만 그들이 쥐어준 개념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개념을 통하여 서양을 나의 콘텍스트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 그래서 통속적으로 너무 자주 논의되는 실천과 진보의 개념을 다시 보자는 뜻이다. 이렇게 다시 봄으로써 임지현의 민족주의 논쟁이나 조석곤의 근대화 내재성 논쟁이나 김상봉의 나르시시즘 논쟁과 김진석의 동양담론 논쟁에서부터 나아가 오래된 포스트모더니티 논쟁이나 김동춘의 지식권력 논쟁 등이 의외로 쉽게 타결될 수 있다. 그래서 학문의 폭은 넓어지고 자연스럽게 자생적 학문의 길이 터질 듯 하다. 자생적 학문을 위한 실천의지는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서양사상사를 플라톤 중심으로 이론의 체계로 보는 관행에서 벗어나 그 이론조차 실천의 구도에서 구성되었음을 보이려 했다. 나아가 진보 개념 역시 19세기 사회주의 운동의 출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대 희랍철학에서부터 서구 근대사유 구조에 이르기까지 깊숙이 배어 있었던 서구의 기본 사유임을 이 논문에서 말한다. 그러한 실천과 진보 개념을 이해할 때, 19세기 말 개체적 자유와 물질적 진보 개념이 결탁하여 오늘의 신자유주의로 변신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실천과 진보 개념은 우리 시대에서 여전히 중요한 현실적 주제이지만 그들의 서양 개념사의 한 단편임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그 개념이 아무리 당위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학문은 우리의 문제를 풀기는커녕 서양 그들의 문제 거리 주변에서만 맴돌게 될 것이다. <끝>

<요약>

지난 1980년대 중반 이후 새로운 학문의 길을 모색하는 소장 학자들의 고민은 전과 다르게 우리 자신에 대한 비판과 반성으로부터 추동되었다. 그 내부적 반성과 외부적 비판에 대한 수사법과 핵심어는 다음과 같았다. 학문의 고물상과 수입상, 학문의 자생성과 종속 학문, 토착이론과 학문의 완결성, 학벌주의와 권력도구의 학자, 학문의 폐쇄성과 학제간 연구, 실천이론과 사회참여, 근대성 논쟁과 글쓰기 담론들, 이데올로기와 신자유주의, 인문학의 위기 등이다. 이러한 비판적 반성을 담지하는 지식인의 여정은 학문의 자생성과 보편성의 갈등을 어느 정도 종합적 논제로 상승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문제 지적만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러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찾아내는 일이 중요하다. 필자는 그런 미해결의 이유가 실천과 진보의 개념을 (1)지나치게 구호와 이념의 도구로만 사용했으며 (2)서양의 범주 안에서만 개념 이해를 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따라서 이 글은 짧은 지면이나마 실천과 진보에 대한 철학적 검토를 압축적으로 시도했다.

그 결론으로서 서양사상사를 플라톤 중심으로 이론의 체계로 보는 관행에서 벗어나 그 이론조차 실천의 구도에서 구성되었음을 주장했다. 나아가 진보 개념 역시 19세기 사회주의 운동의 출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대 희랍철학에서부터 서구 근대사유 구조에 이르기까지 깊숙이 배어 있었던 서구의 기본 사유임을 이 논문에서 말한다. 그러한 실천과 진보 개념을 이해할 때, 19세기 말 개체적 자유와 물질적 진보 개념이 결탁하여 오늘의 신자유주의로 변신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실천과 진보 개념은 우리 시대에서 여전히 중요한 현실적 주제이지만 그들의 서양 개념사의 한 단편임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그 개념이 아무리 당위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학문은 우리의 문제를 풀기는커녕 서양 그들의 문제 거리 주변에서만 맴돌게 될 것이다.

<찾아보기 단어>

진보

실천

자생적 학문

비판적 지식인

시장원리

관망과 개입

침투와 참여

생명복제기술

빅토리아 진보관